

NEWS

나로우주센터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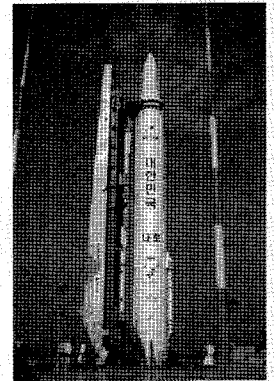
지난 6월 11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소재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지자체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 인공위성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나로우주센터는 우리 땅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00년 12월 건설에 착수되어, 511만m²의 부지(시설부지 37만m²)에 발사대와 발사통제동, 종합조립동, 기상관측소, 추적

레이더, 광학추적장치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금도 130여명의 국내 연구원들이 우주발사체를 힘차게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대에 대한 최종 인증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 7월 말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이정표가 될 '나로호'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한편, 7월 말에 이어 내년 4월 '나로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나로호'의 뒤를 이을 후속 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KSLV-II)를 국내 독자기술로 2018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달탐사 궤도선을, 2025년까지 달탐사 착륙선을 개발하는 등 우주탐사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향후 나로우주센터는 '나로호' 2차 발사와 한국형발사체 발사뿐 아니라 발사체 개발을 위한 각종 시험장 등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시설과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항공기 수출 위해 국가 인증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는 국내 최초로 안전성 인증 획득을 목표로 추진 중인 4인승 소형 항공기 개발사업에 맞추어 국산 항공기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항공기 안전인증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위탁하여 개발 중인 4인승 소형 항공기를 시범 안전성 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금년 내에 대부분의 인증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후, 소형 항공기의 상세설계 단계인 2009년 하반기부터 인증을 착수하여 2012년에는 인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발 중인 소형 항공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가 인증을 받고 양산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판매되는 민 항공기로 기록될 예정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운항을 목적으로 항공기를 설계·생산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의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일부 실험적으로 개발된 민항공기는 있었으나 국가 인증을 받고 상업적인 생산이나 운항을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국가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항공기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기준 등 인증관련 법령과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또한, 개발 중인 항공기가 비행 적합성, 순항속도와 같은 각종 비

행성능, 조종·기동 성능, 기체 구조, 엔진, 자동조종장치와 같은 각종 장비품 등에 관한 약 1,000여개의 조항에 이르는 국가 기술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인증담당 엔지니어 약 20여명을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지원을 받아 교육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 인증능력이 구축되어 국내에서 개발하는 항공기가 인증을 받고 수출될 경우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8년 3,980억불에 달하는 세계 항공제품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45억불로서 비교적 미흡한 실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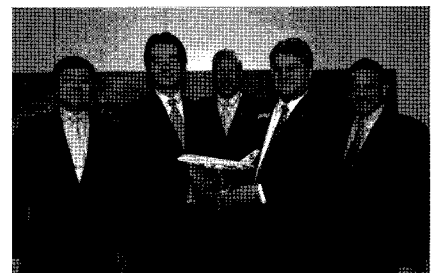
한편, 국내에서 개발 중인 소형 항공기는 자가용은 물론 교육용 등으로 미국에서만 16만 여대가 사용되고 있는 4인승 프로펠러기로서, 금속 구조물 대신 첨단 복합소재를 이용한 단일 기체구조로 안전을 향상시키면서도 경량화하여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로 대형기에 적용하는 최첨단 전자장비 등을 갖추어 GPS와 같은 항법장비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체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체 낙하산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화된 성능과 디자인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최신형 PW 4170 엔진 14대 구매계약 체결

대한항공이 오는 2010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에어버스사 A330-200 성능강화형(Enhanced Model) 항공기에 장착할 엔진으로 미국 Pratt & Whitney의 PW4170 Advantage70™ 모델을 선정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여객사업부장은 6월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에어쇼 행사에서 Pratt & Whitney 토드 콜맨(Todd Kallman) 상용기 엔진부문 사장과 PW4170 Advantage70™ 엔진 14대(약 3억달러 규모)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선정한 PW4170 Advantage70™ 엔진은 기존 A330 모델에 장착하던 PW4000 계열 엔진을 대폭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기존 모델 대비 추력과 내구성, 연료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정비비를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말 에어버스사와 A330-200 성능강화형 항공기 6대를 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입하기로 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 대한항공 조원태 본부장은 "Pratt & Whitney의 PW4170 Advantage70™ 엔진은 높은 효율성과 함께 연료소모량 감소 등의 장점을 갖춘 친환경적 엔진으로, 대한항공의 글로벌 노선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ratt & Whitney 토드 콜먼 사장은 "세계 항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 대한항공에 새로운 엔진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도 대한항공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도입하는 PW4170 Advantage70™ 엔진이 장착된 A330-200 성능강화형 항공기를 유럽과 북미지역 등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항공관제용 무선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가 차세대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링크 기술(VDL Mode-2)을 개발하여 지난 4월 17일 국내 최초 비행시험에 성공하였다.

※ VDL Mode-2 : VHF Data Link Mode-2(항공 이동용 무선 데이터링크 기술)

지난 '05년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연구개발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연구해 온 핵심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시제품(송수신기)으로 '08년부터 1년정도 지상시험을 실시해 왔으며, 금년 4월 17일 시속 800km 속도의 비행시험에서 통신 성능을 만족시켰다.

이 기술은 국내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적용하여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관제사와 조종사는 현재보다 13배정도 빠른 속도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 승객들은 항공기 내에서 이메일과 인터넷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교환정보 : 활주로정보, 기상정보, 항공기 고도배정정보 등

항공운송 면허제도 개편, 신규항공사 시장진입 촉진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를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경량항공기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이 6월 9일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은 항공운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국제 및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면허요건을 대책 완화하였으며, 특히, 19인승이하 소형기를 활용하여 국·내외 운송이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에어택시(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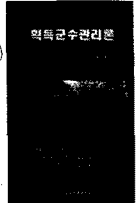
Taxi)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2008.5)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통합하였으며, 항공안전의무 및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배분되어온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년에 국제, 국내 면허체제로 분리됨에 따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 운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09년 9월 10일 시행된다.

■ 신간소개

- 책명 : 획득군수관리론
- 저자 : 최기출(에 해군중장/해사26기)
- 펴낸곳 : 21세기군사연구소
- 정가 : 30,000원
- 책크기 : 154 x 225
- 분량 : 552페이지
- 판매처 : 전국 대형서점 및 21세기군사연구소 본사 (02-842-3105)



이 책은 저자의 33여 년간 군 생활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수 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글이다. 저자는 미 해군대학교 체계분석 석사과정에서 운용분석법에 대한 학문적 배경을 갖추었고 현역에 있으면서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기획, 계획 및 집행하는 부서인 기획관리참모부 및 조함단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참모차장으로 전역하여 현재 주 스리랑카 대사를 역임하고 있다.

• 주요 내용

1. 군수의 학문적 이론의 개념과 체계공학 기반의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다루지는 비용대효와 분석, 신뢰도, 가용도 및 정비도 분석 등 다양한 군수지원분석기법과 소요의 예측, 재고관리 및 품질관리 기법 등 소개
2. 국내외에 공개된 각종 법규와 훈령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획득군수의 개념, 업무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소개

세계 최초 중대형 위그선 상용화공장 전복에 들어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6월 18일 왕십중공업(주)과 차세대 초고속 해양운송 수단인 중대형 위그선(Wing In Ground Effect Craft) 상용화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투자협약 체결식을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가졌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및 도로, 부두 사용 등에 대한 인프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공하고, 투자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왕십중공업은 중대형 위그선 및 부품을 생산하고, 80천㎡(군산자유무역지역 내 43천㎡ 포함)에 투자규모 1,000억원, 1,60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단계로 2009년 6월에 군산자유무역지역에 50인승급 위그선 생산공장을 착공하고, 2015년까지 단계별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왕십중공업은 2010년말까지 50인승급 위그선 시제선 건조 및 시험운항을 완료하고, 50인승급 위그선 첫 수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0~200인승급, 2015년까지 300인승급 위그선 설계 및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다.

